

‘선각 변상판’ 집중조명

6일 용인대 전문연 세미나

5각(五角)이라는 형태적인 특징과 함께 열반 순간의 장면을 금동관에 조각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발견된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金銅線刻涅槃變相板)’을 집중 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용인대 전통문화연구소(소장 김준남)는 6일 오전 10시 용인대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반선상과 그 미술·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을 주제로 제3회 정기학술포럼을 갖는다.

미리 배포된 자료 ‘나말여초 금동선각열반변상판 연구’에서 배진달 교수(용인대)는 “선각열반상에 표현된 열반상의 전체적 분위기는 당시의 보편적인 열반관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교수는 “초기 우리나라 열반상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되는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권이 도상해석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밝히고 <대반열반경>을 중심으로 선각열반판을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열반상 신앙(김영태·동국대) △금동선각열반상판 연구(이호준·문화재 전문위원) 등이 발표된다.

“공생위한 사회복지 절실”

동국대-교토불교대 ‘자비, 현대사회의 대응’ 학술대회

인식전환-봉사자 관리 등 당면과제 인간다운 심성과 덕 자비서 찾아야

불교의 핵심이자 대의(大義)이며 본질인 자비(慈悲). 자비사상이 21세기 인류에 있어서 어떠한 방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집중 조명하는 국제학술포럼이 열렸다.

동국대(총장 송석규)와 일본 교토불교대(총장 다카하시 코오지)는 27일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현대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제5회 한·일 불교문화 국제학술포럼을 가졌다.

‘자비의 사회복지적 가치와 실천’에서 김용택 교수(사회복지학과)는 “현대사회에서 대응하고 있는 불교의 사회복지 사업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타종교와 비교하여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은 우세하고 실천자를 위한 사업은 양호한 수준이나 보육아동·청소년 복지는 초보단계, 여성복지는 시작단계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실태는 불교가 실천적으로 전개해야 할 사회복지 사업을 통한·종법상의 임의규정이 지연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교사회복지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로써 △불교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 △불교적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의 전문화 △사회복지의 전달체계 확립 △자비봉사자의 발굴과 관리 △교단의 지원과 재원확보 등을 제시



동국대와 일본교토불교대는 ‘불교에 있어서의 자비’를 주제로 27일 제5회 한·일 불교문화 국제학술포럼을 가졌다.

했다. 또 김교수는 자비의 사회복지적 실천사항과 원리를 생명존중사상과 개인존중의 원리, 대승보살도 정신과 서원(誓願)의 자발성 원리, 기회균등사상의 원리, 연기(緣起)의 상의상관(相依相關)과 사회연대의 원리 등으로 설명하며 “불교의 사회복지활동은 교리 안에서 이미 담보되어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라는 시간과 공간의 외부적 상황 속에서 한층 더 실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즈키와 신순(槻川眞旬) 교수는 ‘자비사상의 현대사회적 전개-불교복지의 전개’를 중심으로 “자비사상은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세속적 현실 속에서 사회현상의 해석이나 사회적 문제의 완화·해결 등을 위한 필연적 혹은 방편적으로 광범위한 지도성을 발휘했다”며 “다가올 21세기도 불교의 이상을 실현하는 그릇됨이 없는 목표와 그 방향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즈키와 교수는 자비사상의 사회적 실천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로 △기회균등 등 당면시화(Nomaleization) 개념의 구체화 △자립(自立), 공생(共生)을 목표로 하는 복지문화의 건설 △인권의식의 정착화 등을 지적했다.

‘21세기와 자비’에서 목동배 교수는 “자비가 자비(博愛)와 인(仁)과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일지라도 ‘무차별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의 자비 덕목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목교수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 나타난 자비의 종류, 즉 공생을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비와 세상의 이치를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비, 공적의 진리를 고려함으로써 생기는 자비를 설명하며 “21세기의 목전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갖춰야 할 가장 근본적으로 귀중한 심성, 덕을 자비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살사상으로서의 자비(모리야마 세이데즈·森山清徹) △초기불교교단과 사회의 관계(야마기 노부유키·山極伸之) △불교승려연금제도의 구성요소(김보현 행정학과) 등이 발표됐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불교적 세계관으로 21세기 문명전환”

동국대 불사연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 세미나

“삶의 근원인 생사매듭 과학기술로 해결 불가능”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문명의 전환은 나와 남, 인간과 자연 및 모든 생명을 돌이키고 보는 불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가능하다.”

21세기, 종교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28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원효관에서 열린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윤호진) 개원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강건기 교수(전북대)는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통해 “변화만능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21세기의 문명 앞에서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자타불이(自他不二)의 세계관을 제시하는 일, 자기회복의 원음(圓音)을 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종교적 권위는 축소되고, 그 영향력이 많이 상실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21세기에 종교적 요청이 메마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종교

의 고유한 영역이 그것으로 대체될 수는 없으며 또한 미래의 세계 혹은 문명의 방향을 종교가 계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종교가 ‘옴’이라는 한 부분으로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가장 근원적인 것을 문제삼는 만큼 삶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생사(生死)의 매듭이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강교수는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길이며, 따라서 종교에 대한 갈망은 과학이나 기술의 발달 등 외적인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양을 갖”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교수는 “모든 것을 들로 보는 세계관을 기초로 과학기술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나인 세계관으로의 전환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은 오히려 인류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제언했다. 또 “과학기술의 눈에 지혜의 눈을 달아주는 일, 이것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져 환경을 살리고 이치를 보살피는 일 등에 앞장서야 불교는 21세기에 그 위상을 찾고 존재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고양이 닻다

인터넷 사이트 닻다매 (http://www.dharmathac.at.com)에서 제공하는 선(禪)만화.

허설 소유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독에 의해 해를 입는 것과 같다. 마치 불을 땀나무에 첨가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불꽃은 영구히 꺼지는 일 없게 된다. 어리석은 중생이 소유에 집착하는 이리하다.

Restorative Training Monks established a new Buddhist monastic order which we believe to be the first of its kind in the western hemisphere. In 1986 the first monks entered the Monastery of Absolute Harmony, eighteen months later the first nuns were ordained at the Monastery of Infinite Compassion.

Males and nuns are fully liberated from all external distractions, able to concentrate singularly on setting the Buddha's teaching into practice.

The monastic discipline is in full accord with the traditional Vinaya rules of the Theravada school of Buddhism. However, there is no formal hierarchy, however, there is a clear structure of authority.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꽃 아우카나 트라스트

제임스 설립사이트... 회원 32만명

1980년대 영국에서 참선을 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 25년간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준 제임스 설립사이트가 설립한 사이트이다.

1985년 영국 윌셔지역에서 설립된 이 단체는 불교사단법 제로 변모하면서 등록 회원만 32만여명이 넘는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불교단체이다. 이 사이트에서 아우카나에서 운영하는 참선센터와 두 곳의 사찰(비구와 비구니 사찰로 구별되어 있음)의 수행관·법, 프로그램, 사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제임스님은 1940년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런던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으나, 곧 서구 과학의 한계를 느끼고 나서 그의 관심은 동양철학과 종교로 쏠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깨달음의 길과 스승을 찾기 위하여 인도를 두 번 여행하는 과정에서 1968년 리처드 랜달 스님(태국)을 스승으로 맞을 수 있었다. 1971년 제임스님은 스승인 랜달스님이 인적하자 태국에서 수행을 시작한 후 1980년 영국으로 돌아와 참선센터를 세우고 나서 바로 5년 뒤에 아우카나를 설립했다.

아우카나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실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수행들이 사찰과 참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깨달음을 위해 모든 불교적 의식과 문화적 부차들을 배제하고 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현대 서구사회와 이상적으로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부처님 당시처럼 아우카나에서 어떤 수행자들은 불교전리

에 대한 헌신인 태도가 마침내 깨달음의 길에 이를 것이며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우카나에서 가르치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방법으로는 철저하게 계·정·혜 삼학에 근거한 전통적인 불교적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우카나에서도 다른 승가 공동체처럼 사부대중 중 신도들은 스님들을 철저하게 옹호하며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 아우카나에서의 수행방법은 기본적으로 참선 수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현대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반영시키기 위해 새로운 소수 계층에 채택하고 그들의 계층체계에 반영시키고 있다. 아우카나가 다른 불교종파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적인 불교계열과는 달리 비구·비구니가 동일한 계층 항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아우카나 사이트에서는 참선센터, 사찰 등의 뉴스 뿐 아니라 참선으로 표현되는 불교사상에 대한 영국 불교계의 논쟁을 담은 소식지에 열람할 수 있다. 이 소식지에 따르면 아우카나의 수행관에 대해 영국 불교계의 전통주의자 시선은 굵지 않은 것 같다. 전통주의자들은 “제임스님의 불교사상은 단지 동양의 문화가 서양에 도입되어 서양적으로 변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다소 급진적인 불교사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또 “제임스님이 강조한 사성제(四聖諦)가 너무나 보수적인 사상”이라고 꼬집고 있다.

http://www.aukana.org.uk/am on.html/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일타크스님의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계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알려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제자·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신국판 / 5,000원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일타크스님 범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나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고 계신 일타 크스님. 원간 <범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 크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크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신국판 / 5,000원

불교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뛰어난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크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3,000원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기도』 출간 이후,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다시 집필을 시작하신 스님의 기도 방법 지침서.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임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4*6판 / 3,300원

祈禱

신국판 / 5,000원

일타 크스님의 알기쉬운 불교책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바구의 <자경문 自警文>을 알기 쉽게 풀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구사 <초심 初心>의 해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 범망경보살계 1 - 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스님의 무어변(無碍辯)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 감로법문
일타크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2,000원